

벤처신화에 뛰어든 9인의 젊은 양계인들

- 면역항체 계란 생산에 성공, 곧 출시예정 -

◇ 취재 / 김동진 기자

최 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사양가들이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생산비선 이하로 난가가 하락하면서 생산기반마저 흔들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에서의 벤처신화를 이루기 위해 열의에 불타는 젊은 양계인들이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 광주지역에서 채란업을 하고 있는 9명의 젊은 2세 양계인들로 지난 1999년 4월 '모두가 참여한다'는 뜻을 가진 다한영농조합법인(대표 이만형)을 결성하여 차별된 제품생산을 통해 채란업의 경쟁력 확보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다한'의 조합원들은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실제 6~8만수의 산란계 농장을 직접 책임경영을 하고 있으며, 서로간의 결속



△ 다한영농조합법인 가족들(가운데 이만형 조합장)

과 믿음이 남다르다 할 수 있다. '다한'은 여타 조합법인들과는 달리 병아리 공동구매, 고정수의사를 두어 공동 방역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료의 공동구매를 통해 사료의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 지난해 다한과 고려대 의과대학이 면역항체 계란 개발에 대한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이만형 조합장(좌)과 염창섭 박사(우))

또한 철저한 기록관리 시스템과 전산화 처리를 기반으로 상황변화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 사양관리를 도입, 육성단계부터 면역을 강화시킨 건강한 닭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한’은 이미 생산자들에게 신선한 계란을 공급한다는 취지하에 벤처정신으로 부가가치란, 기능란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결과 생후 20주령에서 50주령사이에서 낳은 신선하고 안전한 계란인 ‘2050’란을 출시하여 시장공략에 나섰다. 또한 무항생제 정장 개념인 숯을 계란에 이용한 일명 ‘숯계란’이 광주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인정돼 군청과 공동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다한’에서는 지난 1999년 8월부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면역항체 계란 개발에 착수하여 헬리코박터(Helicobacter pylori)에 대한 항체를 가진 계란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는 생산방법 등에 대한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대량생산 단계에 이른 상태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 Helicobacter

pylori는 사람에게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세균으로서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시 항생제에 대한 내성 획득, 대장염, 설사, 알레르기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다한에서 개발한 계란은 그러한 단점이 없으므로 약물치료와 병용한다면 치료를 보조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발병하는 위염을 가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난 12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BK21 산학협동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헬리코 박터균에 대한 연구에 권위가 있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염창섭 박사팀이 연구에 착수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9명의 ‘다한’ 조합원들은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연구, 개발,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의 과감한 출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면역항체 함유 계란을 국내 처음으로 상품 현실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양계산업에 활력소를 제공하고 있다. **양계**

다한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단

- 회 장 : 이만형
- 고 문 : 이상수
- 감 사 : 이수인
- 총 무 : 정근수
- 유통부문 : 이지환, 김재은
- 마케팅부문 : 김재현
- 정보부문 : 오기택, 손승기